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⑰

일본 나가사키현 가드닝 플라워 쇼 참관기

일본 나가사키현의 하우스텐보스는 일본 속 네덜란드로 불린다.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8일간 '첼시 플라워 쇼(영국)'의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톱 가드너들이 모인 가드닝 올림픽이 펼쳐졌다. '꽃과 녹음으로 빛나는 평화와 재생'을 주제로 한 이번 플라워쇼 현장을 가든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직접 참관하고 후기를 전한다.



하우스텐보스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왕궁과 거리를 일본 나가사키현에 재현한 테마파크다. 바다와 연결한 운하를 도심 안으로 돌게 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모토 아래 세워졌다. 흔히 테마파크하면 모형을 만들어 흉내 낸 정도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곳은 큰 규모에 정교한 건축물,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마치 네덜란드의 한 소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이곳에서 열린 '제4회 가드닝 월드컵 플라워쇼 (Gardening World Cup Flower Show 2013 in

Japan)'는 '꽃과 자연으로 평화와 재생을 기원한다'는 타이틀을 내세웠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갠 가해자인데, 이들은 스스로를 단순 원폭의 피해자로 강조하며 이곳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전시는 10×10m 크기의 쇼가든, 5×5m 크기의 휴가든, 플라워 디자인 부분으로 크게 나뉘고, 아기자기한 작은 전시들과 방문객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끈 부스들이 자리했다. 관람객들이 호응이 높았던 곳 위주로 대표작을 공유해 본다.



제4회 가드닝 월드컵 플라워쇼 입구

무릉도원 | 이시하라 카즈유키 作 | 일본



이시하라 카즈유키는 첼시플라워쇼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인이다. 그는 중국 시안에 읊은 무릉도원 이야기를 정원에 담았다.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정원 하나에 완벽하게 담았다. 공간 구성은 물론 정원 속 아기자기한 디테일과 작품의 완성도가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특히 한 공간에 다양한 높낮이와 여러 모양의 창을 두어 각각의 뷰를 달리한 점이 인상적이고, 재료와 조합도 섬세하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원 박람회들은 작품의 질을 보장하기 힘든 낮은 제작비가 지원된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원을 만들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을 지 궁금증이 먼저 일었다.

평화의 추구(Finding peace) | 마이클 피트리 作 | 미국



미국의 대초원과 대나무 타워를 형상한 디자인으로, 쇼가든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초현실적인 매력이 있다. 일본의 기술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함께 협조하여 평화를 만들자는 의미를 오브제와 강렬한 컬러로 표현했다.

마이클 피트리는 가든 디자인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랜드스케이프계의 귀재다.

영원한 열대-자연과 평화 | 존 탄 & 레이몬드 토 작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원 디자인 산업을 견인하는 2대 디자이너들로 열대를 테마로 한 정원을 선보였다.

열대식물과 재생재료를 이용한 꽃의 향기와 자연이 내는 소리를 자연과 평화로 담아 표현했다. 특히 열대성 식물들이 돋보이고 흰 그늘막 벤치에서 추억 한 장 남기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최선은 물과 같다 | 야마구치 요오스케 작 | 일본



야마구치 요오스케는 교토 정원사 밑에서 가드닝을 수학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왕립식물원에 몸 담았던 디자이너다. 유연, 겸허, 힘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물을 이번 디자인의 주제로 삼아 서로를 이해하고 물처럼 살아가자는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예배당이라면 신심이 절로 생길 것 같다. 실내외 구성이 완전히 다른, 두 공간의 대비가 주는 매력 역시 대단한 작품이다. 계단을 양쪽으로 흐르는 물은 낮은 데로 향하는 겸손함과 유연함을 상징한다. 물의 잔잔한 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강인함을 보여준다. 벽을 두고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물을 보여주는 것은 인종과 문화가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물처럼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세계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정원에서 한참의 시간을 보내며 완성도에 극찬을 보냈다. 불과 보름 전에 급조된 정원이라고 보기엔 돌과 꽃들의 품새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또 한 번 놀란 곳이다.

■ 이상향(Arcadia) | 잔티 화이트 作 |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정원 디자이너이자 멀티 아티스트 잔티 화이트의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이상향을 정원에 담았다.

근원적인 아름다움인 이상적인 풍경을 뷰잉룸 밖 프레임을 통해 그림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목재 가재보로 짜여진 실내는 월기든 형식으로 벽면식재로 채워졌다. 여기에 흰 모피가 씌워진 의자 하나를 두고 이상적인 자연을 원하는 인간의 소극적 갈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무한을 향하여(Ad infinitum) | 제임스 바슨 作 | 프랑스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정원을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제임스 바슨 작품이다. 산업화 시대의 종언을 암시한 무한 세계를 표현했다.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 1차 세계대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화가 모네는 모국 프랑스에 평화의 상징으로 대연작 '수련'을 기증했다. 숫자 11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은 작가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더불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오랑주리 미술관을 본딴 타원형으로 정원을 디자인했다. 수평선도 물가도 없는 물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바람은 버들과 수초를 흔든다. 전쟁과 다른 자연적 요소들이 주는 안락한 평온을 드러낸 수작이다.

자유를 되찾아라 | 레온 클루치 작 |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인종차별에 맞서 반역죄로 투옥된 흑인 인권운동가이다. 그를 기리는 목적으로 디자인된 정원은 만델라가 수용소에 있었을 당시를 모티브로 한다. 9개의 벽은 아프리카 9개 주(州)를, 벽의 녹색 컬러는 해방 후 자유와 성장, 안쪽 벽은 빈곤을 상징한다. 여기에 아프리카적인 밝고 다채로운 장식은 보는 이들과의 친밀감을 주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원의 진정한 의미는 보고 즐기는 호사와 허영이 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평화와 안락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단순한 풀 한 포기 생명과 흐르는 물, 부는 바람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본연의 생명이라고 외치고 싶다. 하지만 지구 어디에서는 전쟁과 기아,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각자가 개인의 벽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문명을 좇다 잃어버린 이상향을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는 것이, 자연이란 이름의 정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을 매료시킨 젊은 재능의 작가로 남아프리카에서 세계로 웅비하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색채를 사용해 해방 직전의 자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우스텐보스의 바로크 궁전정원이 밤을 맞으면, 정원은 조명과 음악, 조형물, 분 등 각종 다양한 장르가 모여 종합예술을 만드는 양 화려하다. 정원에 조명은 밝기만 하면 그만이고 음악은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이들이 아직 많지만, 이는 제대로 된 정원을 누려보지 못한 탓일지 모른다.



식물의 혁명이나 개량이 이루어진 곳은 어김 없는 선진국들이다.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고유종을 더 키우고 늘려가야 하는 숙제가 있고, 우리만의 정원 색을 발굴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작가 두 팀의 작품은 소개하지 않았다. 얼마 전 국립수목원에서 공모한 '한국의 가을 정취'를 주제로 한 생활정원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많은 작품에 토속적인 담장, 물레방아, 원두막을 다루고 있었다. 일본



가드닝쇼에서 만난 우리나라 정원 역시 같은 주제였다. 정원을 보는 일반인들뿐 아니라 전문가 입장의 디자이너들도 안목의 평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 역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일본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텐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이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